

5/16/21

설교 제목: 야곱과 요셉의 죽음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9 장 29 절-50 장 26 절

(창 49: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창 49: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창 49: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창 49: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창 49: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 50:1)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창 50:2)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창 50: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창 50: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창 50: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창 50:6)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창 50: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창 50: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창 50:9)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창 50: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창 50: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창 50: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창 50: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창 50: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창 50: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창 50: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창 50: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창 50: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창 50: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 50: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창 50: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창 50: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 50: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 50: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개인 중심의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중심의 공동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1 단원의 막이 내리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2 단원의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1 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태동시키십니다.

그 일을 위해 나라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국민 주권 영토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400 년 동안 애굽에서 그 씨를 성장시키십니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을 근간으로 열 두 지파를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확장시키십니다.

그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원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먼저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세상적인 집착이 강했던 야곱은 자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고백했듯이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하려다가 20 년이라는 세월을 하란 외삼촌 집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세상적인 생각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벧엘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겁탈 당하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속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슬픔 가운데 20 년을 살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결국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 간지 17 년만에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창 49: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창 49: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창 49: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창 49: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창 49: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땅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종국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인내하셨고 끝까지 견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거듭된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야곱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생도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종국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룹니다.

(창 50:1)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창 50:2)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창 50: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사십 일 동안 향처리를 해 미라로 만들고 칠십 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요셉은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매어다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창 50: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창 50: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창 50:6)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창 50: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창 50: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창 50:9)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창 50: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창 50: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창 50: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창 50: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매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헛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가나안 땅으로 장사를 치르러 가는데 바로의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병거와 기병이 요셉과 동행했습니다.

야곱 후손들은 이 성대한 장례를 지켜보며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에 자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꼭 돌아오리라고 굳게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요셉이 혹시 과거 자신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용서를 구합니다.

(창 50: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창 50: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창 50: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창 50: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반응을 전해들은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 갑니다.

(창 50: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창 50: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찾아온 형들을 안심시키며 도리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위로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거 상처가 하나님에 의해 말끔히 치유되었기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형들을 깨끗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야기된 야곱가의 악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야곱가의 과거가 깨끗이 청산되었습니다.

모든 악과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상처를 말끔히 치유받고 모든 악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악과 저주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도 숨을 거둡니다.

(창 50: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창 50: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창 50: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 50: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 50: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입관한 채로 애굽에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은 17 살에 종으로 팔려와 110 세에 죽기까지 93 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보다는 애굽이 더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요셉은 왜 야곱처럼 자신이 죽으면 당장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하지 않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실 바로 그때 시신을 메고 가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가까운 장래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치적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대해 주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날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시신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고 또 애굽 왕조가 바뀌면서 전 왕조에 충성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바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신을 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노예 생활을 견디어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출 13: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수 24:32)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남겨진 시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요셉의 시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보면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재림의 구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